

# 메타세코이아재배



이 여 하  
<건국대학농과대학교수>

## <서론>

1970년을 전후하여 관상수재배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크게 일어나자 여러가지 수종과 특성에 대한 유혹이 많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선익의 보급을 위한 선전도 있었거니와 경우에 있어서는 상인 특히 중간에서 실지 나무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선전공세가 컸던 것을 기억한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컸던 메타세코이아(Metasequoia)의 거센 파동이 당시에 일어났던 사실을 되새겨 5~6년이 지난 현재 이 나무가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관상가치나 경제적 조림면에서 어느만큼 기대했던거와 차이가 있는가등 몇가지를 소개하여 일반 농촌이나 간단한 공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간단히 적어 보기로 한다.

## 1. 메타세코이아란?

메타세코이아라는 나무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그리 멀지 않다.

메타세코이아(Metasequoia)는 해방전까지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 다만 수만년전에 있었던 화석식물(化石植物)로만 알려졌고 식물이라는 점에 일반보다도 오히려 식물학자들이 앞장서서 경이적인 귀중한 화석식물로 다루고 이를 보급하려고 노력했었다.

1945년 중국의 사천성과 호북성 경계에 있어 신목(神木)이라고 알려졌던 높이 35m, 직경 2.3m의 나무를 당시의 한 임무관에 의하여

학계에 보고되므로서 이 나무가 정식 빛을 보게 되었다 한다.

높이 35m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큰 거목(巨木)임에 틀림없다.

이 나무는 처음 종자와 가지를 가지고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 일본으로 보급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학계에서는 처음부터 화석식물로 알려졌지만 관상수 재배업자에 의하여 삼목번식에 의한 보급이 이루어 졌다.

같은 화석 식물로 알려졌던 은행나무도 묘사이는 그번식이 한창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로수 관상수 또는 일부 유실수로써 각광을 받고 있거니와 이 메타세코이아나무도 여러모로 중요시됐던 나무임에 틀림없고 업자의 손을 빌어 번식되어 일본에서 들여왔던 이 나무가 3~4년전에는 많은 삼목묘가 다시 일본으로 역수출되었고 그 가격도 상당하여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이다.

불펜 길이면 두개의 삼수를 얻을수 있고 발근만 시키면 본당 100원 이상을 호가할 정도로 당시에 인기가 컸던 나무이니만치 메타세코이아에 대한 일반의 호기심은 큰 것이다.

그러나 흔히들 식자가간에 미국에 있는 세코이아라는 거목으로 혼동하는 수가 있는데 이 나무와는 다르다.

미국에 있는 세코이아도 거목임에는 틀림없으나 여러가지 식물형태상 차이가 있다.

## 2. 메타세코이아의 특성

앞에서 지적했던바와 같이 화석식물로나 알

려졌던 식물이었기에 더욱 화제가 됐거니와 더욱이 이 식물이 발견돼서 그 나무를 모수로 하여 종자나 가지에 의하여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 보급되고 있는데 당시 발견됐던 메타세코이아의 모수가 직경이 230cm, 수고 35m라는 믿어지 않는 거목이라는 점에 더욱 이 나무가 그의 성장량에 기대하는 것 같다.

위에서 지적했던 모수의 크기는 나이가 어느만큼된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수는 없다.

이 메타세코이아는 식물학상으로 삼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로 그 모습이 대단히 우아해서 호감이 간다.

잎은 깃털모양으로 가지에 마주나 있으며 색채가 연하며 잎이 부드러워서 청신한 맛을 느끼게 하며 나무가 크면 솔방울을 맺는다.

세코이아나무는 잎이 상록인데 비하여 이 나무는 겨울에 낙엽이 되어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어떠한 면에서는 낙우송과도 닮았다. 특히 미국의 동부에 나는 낙우송과 흡사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낙우송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잎모양이 비슷하다고 하여 메타세코이아의 인기상승에 부레이크를 걸어 오히려 재래종인 낙우송을 권장하기도하여 일시 메타세코이아가 구하기 힘들고 값이 비싸게 되므로 낙우송을 선전하여 낙우송의 인기가 높아졌던 사실도 부인 못 할 것이다.

특히 이 나무 본래의 습성은 약간 습한 곳에 생육이 좋아 적지에 식재된 때에 그의 성장이 왕성하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수형이나 색채 및 그의 광택이 아름다워 녹음으로도 좋고 관상수로서의 가치를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일본에서 가장 인기 수목으로 조림되고 있는 삼나무과에 속하므로 이 나무도 역시 재질이 좋고 부드러워 일반 건축재를 위하여 펄프용 재로서 그의 가치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서 일부에서는 너무 속단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즉 아직 이 나무에 대한 재배역사가 짧운데 앞질러 추측기사를 내는 예가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지조림을 권장하는 수도 있는데 과연 현재와 같이 묘목값이 비싼 이러한 나무를 권장해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 산지에 적응이 가능한 것인가 나무 조급한 것 같다.

다만 집근처 공지에 몇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여 그의 성장하는 모습을 관망하거나 관상수로서의 가치는 인정될 것 같다.

### 3. 메타세코이아의 번식

메타세코이아나무의 번식은 종자번식과 삽목번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과는 구둑이 곤란하여 주로 삽목번식에 의하고 있다.

이제 삽목번식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삽수 준비 및 조제

처음에는 국내의 삽수가 부족하여 일본에서 직수입하여 사용했다.

불과 2~3년전의 일이었다.

이와 같이 직수입한 삽수는 중량으로 관당 17,000~18,000원으로 거래되었으며 수입과정에서 너무 건조하여 삽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해서 실패한 예가 많다고 한다.

이제는 번식이 많이 되어 국내에서는 충분한 삽수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삽수는 가급적 1년 가지를 갖이고 규격대로 하려하는 길이 10~15cm로 해야겠지만 초창기의 삽수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7~8cm정도라도 충분히 발근시켜 시판되고 있었다.

삽수의 조제는 삽목하는 시기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춘삽을 할 경우는 잎이 달려 있지 않으므로 일반 활엽수의 삽수와 같이 조제하나 이것은 직경이 가늘고 길이도 짧게 하여 절약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급적 상처를 많이 내지 않게 하고 약한 우스프론에 살균을 시켜 삽목하도록 하면 좋다.

여름에 잎이 제대로 퍼져 성장기에 실시하는 록삽(綠插)을 할 때에는 지중에 들어가는 부분은 잎을 제거하고 줄기 윗부분의 잎은 놔둔다.

일반으로 잎은 길이의 1/3 정도 놔둘 것이며

삽수의 가는 가지에서 성장하는 성장점은 잘라서 삽수후 바로 성장을 계속하지 않도록 하여주는 것이 발근에도 좋고 식물 생리상 유리하다

## 2) 삽 목

메타세코이아의 삽목은 귀중한 삽목으로서 주로 미스트시설을 하고 미스트내에서 삽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0% 발근시킨다는 이유에서 삽수의 구둑이 어렵고 값이 비쌀뿐 아니라 발근시킨 후의 묘목값이 더욱 비싸기 때문에 서로 미스트시설의 신축 또는 확장하는데 열을 올리기도 했다.

가정에는 누구든 미스트시설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폭 1m 길이의 3m 간단한 냉상을 설치키로 한다면 약간 경사진 곳에 깊이 45cm정도 파고 밑에는 자갈을 그 위에는 모래를 넣고 제일 위에는 가는 모래와 황토흙을 반반으로 섞어 넣는다.

이 냉상주위에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간단히 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여유를 두고 말뚝을 박아 빗물이 새어 들지 않도록 비닐로 막아준다.

따라서 이와같은 냉상은 이른 봄에는 실내 온도를 상승시켜 줄 것이고 여름에는 비닐주위에 발이나 나무가지 같은 피음물을 덮어 직사광선과 온도를 저하시킬수 있다.

조제된 삽수는 황토흙을 도토리만하게 뭉쳐 삽수의 밑부분에 약간 꽂아 삽목토록 하며 이 토구에 수분이 흡수되어 건조를 막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좀 집약적으로 삽목을 하려면 일일히 토구를 부칠 필요가 없고 거의 거리 간격 없이 삽수하면 1m<sup>2</sup>당 700~800본의 삽수를 삽목할 수 있다.

아침 저녁 2차에 걸쳐 지중습도를 고려하고 공기중의 습도를 비닐내에서 조절토록 분무기로 관수토록 하여 발근을 촉진토록한다.

3월 하순경에서부터 4월초에 삽목을 실시

하면 충분한 발근은 7월내지 8월에 야외로 이식하여야 한다.

이식묘는 습기가 있는 발에 이식토록 하여 이는 발근이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에는 해가리를 해 주면 활착이 훨씬 유리하다.

7월에 실시하는 녹삽은 발근도 제대로 시킬수 있으나 발근후 미스트내에서 보온을 제대로 하여주지 못하면 월동 시킬수 없으므로 가정에서는 춘삽을 실시함이 좋을듯 하다.

결론적으로 메타세코이아삽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중과 야중 습도 조절에 있어서 관수를 철저히 할것이며 다음이 온도 조절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주야의 온도차이를 조절하기 위한 피음은 봄의 보온과 여름의 냉상의 저온은 서로 차이가 있으나 언제나 20°C 이상의 온도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 3) 이 식

발근된 이식묘는 삽수의 품질에 따라 발근의 차이와 활착에 영향한다.

대체로 삽수가 혼하지 않아 삽수의 기리를 작게 했을 경우에는 발근도 약하고 발근된 뿌리도 약한 것이므로 이식상에서 활착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주어야 할 것이다.

즉 활착에 영향하는 이식상은 평상 내지 저지대에서는 상상으로 상을 만든다.

기비를 충분히 주고 묘목이 이식상에서 1년 또는 2년거치 하느냐에 따라서 묘목의 규격이 달라질 것은 물론이고 묘목의 식체거리도 차이가 있게 된다.

1년간 거치하려 할 때에는 1m<sup>2</sup> 당 25본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2년간 거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9본 정도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1년간 이식상에서 길으면 30cm이상의 묘를 얻을 수 있고 2년간 성장하면 적어도 1m 내지 2m 정도로 성장하게 된다.

## 4. 식 재

식재의 목적은 현재로서는 관상수로 재배하는 것 정도이고 일반 산지조림은 아직 문제점이 많이 있다.

관상수로서 재배하려면 이 나무의 적지선정이 중요한 것으로 적지에 따라 그 성장면이

# 보인가축약품상사

많은 차이가 있다.

적지로는 일반적으로 습기가 있는 사양토 또는 약간의 점질토양에 부식질이 많은 곳이 알맞다.

3~4년간 식재하여 재배하면 수고가 4~5m 이상의 큰나무가 되며 이와 같은 크기의 나무는 가격면에서 상당한 값을 받을 것으로 안다

정원이나 가옥부근에 한두 그루의 나무는 여름의 녹음뿐 아니라 청초하고 그 수령이 여유있는 모습과 주위 환경에 큰 변화를 갖어올 수 있다고 보인다. 일본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2년생으로 8m<sup>2</sup>평균수고를 얻었다고 발표될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으며 활착율은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4년생으로 7m정도 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값이 비싸지 않으면 적지를 선정하여 산지 조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값이 비싸고 적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성장이 빠르므로 벌기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통 추축벌기를 20~30년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이 나무의 재목은 목재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다고 하며 섬유소의 길이가 길고 섬유소의 포함량도 많아서 일반용재는 물론이고 pulp재로서 적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나무의 보급은 관상수 도로가로수 국립공원 등 여러 곳에 식재될 것임에 틀림없다.

—끝—



☆리바구론注 :

간장질환, 피로회복제

☆베리놀注 :

세균성하리, 단순성하리  
발효성하리치료제

☆하구리산 :

자돈하리치료제

☆케토푸렉스 :

케토시스, 유열,  
아시토시스, 저산유치료제

☆우테로톱 :

급만성자궁내막염,  
자궁축농증, 질염치료제

☆트루라민 :

제1위기능강화,  
제1위식체,소화불량치료제

☆에어포리 :

급만성 유방염치료제

☆이소진액 :

자궁주입제, 카다루  
화농성자궁내막염  
저수태우치료제

지방주문환영

양주축협, 중량교인공수정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봉동136-21

☎ 95-5445, 96-3463

야간 : 97-4243

수의사 : 장 경 진

